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음 9월 2일)

제23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는 지난 27일 김승수 시장, 박병술 시의회 의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후비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식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시민들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전주 인후비전작은도서관 재개관식 개최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전주시는 지난 27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대표 김수연) 관계자와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 관계자,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후비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식을 가졌다.

지난 2008년 개관한 '인후비전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KB국민은행이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함께 문화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2019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돼 가구 및 시설 등이 새롭게 단장됐다.

이날 행사는 재개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축하공연과 커피타임,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작은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전라초등학교에서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마련한 스토리텔링·책갈피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책 읽는 버스'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인후비전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공모에 책가투작은도서관과 간담대작은도서관이 선정돼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지역민들에게 책을 매개로 한 문화사랑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후비전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미술포스터 △서서히 독서동아리 △그림책 읽기 모임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외국인 투자시 투자보조금 지원

전북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역 투자 촉진 위한 전국 최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 조례 개정 입지지원 보조금과 병행 지원... 투자유치 기대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2019년부터 폐지되면서 외투기업의 투자촉진 메리트가 줄어든 가운데, 전북도가 적극적인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국 최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항만 및 수출 등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새만금산업단지와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인프라 부족,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전북도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해당 조례는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원 한도로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비해 교통편의성, 고급인력 확보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초기 투자금 성격의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어 외투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투자자들에게 전북 새만금산업단의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세 여건하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뚫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우수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어려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 익산 주얼리 임대공장 오늘 착공

총 사업비 36억원 투입  
40여명 신규 고용창출 효과

익산시가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주얼리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도 주얼리 임대공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주얼리 임대공장 건립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일자리 35,000개 창출'을 위해 익산시가 역점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0일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중국 청도 소재 IK주얼리, 금정공예품과 임대공장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해 실시설계, 경관위원회 자문, 원가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평면계획은 도금을 제외한 주물주조, 연마, 조립·가공, 검사·포장 및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기업 의견을 반영했다.

건축물 외관은 익산시 경관가이드 라인에 맞춰 고도(古都)를 대표하는 문화재 목재와 기와 색채를 도입하여 입면 색채계획을 수립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에 건립되는 임대공장은 총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되어 대지면적 5379.9㎡를 2개 필지로 분할해 각각의 대지에 연면적 999㎡ 공장 1동씩 총 2동을 신축한다.

기업은 인력확충, 기계·장비 등 제조시설 설치 준비, 공장등록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 4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은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국내 복귀 주얼리 기업이 초기 투자 절감비용을 살비도입, 인력고용 등 운영에 투자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익산으로 복귀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준공한 임대공장은 (주)하이주얼이 입주해 가동 중이며, 30명을 시작으로 1년 만에 54명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매일 INDEX

4면 - 철도시설공단, 전주역사 신축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결과 발표

12면 - 제1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프론티어쉽 대담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